

# 정유, 가격담합 논란 대처 “총력”

## 공정위 담합 조사에 대응 철저 ... 정유기업은 폭리 선입견일 뿐

정유기업들이 기름값 논란 대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가 10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유 4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 기름값 폭리 의혹을 다루겠다고 버리고 있고, 또 공정위가 이르면 10월중 정유기업 가격 담합 의혹 조사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월11일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 증인으로 선정된 SK 신현철 사장, GS칼텍스 명영식 사장, S-Oil 투바이엠펀 CEO,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은 최근 내부회의를 거쳐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면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폭리 논란과 관련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 언론보도, 일부 국회의원의 폭리 의혹 제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논리 다듬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SK측은 자사가 1등기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신현철 사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와 S-Oil, 현대오일뱅크 측도 정유업계 대표들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이례적인 경우를 맞아 팀장 회의 등을 통해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대응방안 준비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0월17일 하루에만 유통기업 불공정 하도급 의혹 등 여러 쟁점 현안과 관련한 기업체 대표 증인들이 30명 안팎 출석할 예정이어서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치밀한 추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며 비판의 칼끝이 무뎠지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계는 기름값 문제가 2006년 들어 일부 언론의 추적 보도 등과 맞물려 여느 때보다 조명받았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고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다.

시장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폭리 의혹의 실체 여부를 떠나 큰소리를 좀 듣게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무엇보다 내수 시장에서 석유제품 마진은 크지 않기 때문에 폭리 의혹 제기는 막연한 선입견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원유가 동향과 국제시세에 연동한 석유제품 가격 설정 등을 설명하면서 내수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의 또다른 안테나는 공정위의 가격 담합 조사 결론을 향하고 있다. 공정위가 경제분석을 통해 추정 담합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어 더욱 신경을 쓰는 눈치이다.

정유기업들은 겉으로는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대해 선부른 판단을 유보한 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만약 추정 담합 결론이 내려질 경우 역시 막연한 여론의 압력을 의식한 판단으로 규정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주유소, 특히 정유기업이 직영하지 않는 8000여개의 자영 주유소가 인근 경쟁 주유소와 가격을 비교해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인데, 정유기업이 무슨 담합을 한다는 것이며 혹여 담합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다만 “공정위도 시장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론 등 외부의 압력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일부에서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든 담합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석하고 “그러나 법적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희규 기자) <저작권(©)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06/10/11>